『종교학연구』 제40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2, pp. 149-176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
: 초기 증산 계열 교단 간의 증산 유골 쟁탈사 연구

최 명 훈*

目 次

Ⅰ. 들어가며: 증산 유골 쟁탈의 배경
Ⅱ. 증산 유골 쟁탈 관련 기록: 1909년~1974년의 주요 사건
Ⅲ. 증산 유골의 다양한 의미: 왜 증산의 유골을 소유하려 했는가?
1. 종통을 잇는 증거물
2. 증산 출세의 원천
3. 증산의 대체물
4. 수도에 도움이 되는 성물
Ⅳ. 증산 유골의 의미 확장: 유골이 다른 요소에 미치는 영향
1. 증산 유골 찾기 신화의 구조: 증산법종교의 '육기초공사' 서사
2. 다른 물질로의 신화적 의미의 확장: 증산법종교의 장소와 노래
Ⅴ. 나가며: 유골 쟁탈사와 상호작용하는 유골의 의미

Ⅰ. 들어가며: 증산 유골 쟁탈의 배경

'유골 빼앗기 싸움'이라는 생소한 말을 처음 대했을 때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위해서 이미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유골을 빼앗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1)]

*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과정

> 유골 빼앗기 싸움이란 증산이 종교의 창시자로서 민중들 속에 널리 알려지면서 그를 추종했던 제자 혈족, 그리고 계시를 받아 종교활동을 벌이던 그룹들이 서로 유골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종교적 행위의 하나였다. (중략) 그 와중에서 증산의 유골 중 왼쪽 팔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중략)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의 왼쪽 팔 유골이 은밀히 그를 추종하는 종교단체에 의해서 비밀리에 간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2]

위 글은 1990년대에 출판된『증산 왼팔 유골 어디로 갔나』라는 소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소설의 저자는 20세기 초 한국에 수십 개의 교단을 태동시켰던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유골을 둘러싼 싸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그는 유골을 둘러싼 싸움 도중에 사라진 왼쪽 손목뼈의 행방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소설을 전개한다.

본 논문 또한 이 소설과 마찬가지로 1909년 증산 사후 40여 년간 증산 계열 교단들이[3] 증산의 유골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던 사건들에 대해 다룬다. 무극도(이후 태극도로 개칭)를 세운 정산 조철제와 보천교의 월곡 차경석, 증산의 생전 제자였던 영상 문공신, 증산의 유일한 혈육인 화은당 강순임 등은 증산의 유골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무덤을 도굴하거나 폭력이 동원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법적 소송 또한 수차례 이어졌다. 다만 본 논문은 이러한 증산의 유골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소설이 나올 정도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왼쪽 손목뼈의 행방 외에도 증산의 유골과 관련한 사건들의 역사적 검증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증산이라는 인물의 유골을 두고 여러 교단들이 다툰 현상이 갖는 의미에 집중한다. 소설의 저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미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유골을 빼앗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

---

1) 문일석,『증산 왼팔 유골 어디로 갔나』(서울: 제일미디어, 1993), 13.

2) 문일석,『증산 왼팔 유골 어디로 갔나』, 14-15.

3)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증산 계열 교단'은 증산 강일순을 상제 혹은 미륵불로서 신앙의 대상 혹은 교조로 삼는 증산 사후의 교단들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이후 태극도로 교단명 변경), 월곡 차경석의 보천교, 화은당 강순임의 증산법종교 등의 증산 계열 교단들을 주로 다룬다.

할 것이다.

증산 강일순은 1871년 전라북도 고부군(현재 정읍시)에서 출생해 전라북도 일대에서 여러 이적(異蹟)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증산은 자신을 상제(上帝)라고 주장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전했다. 특히 증산은 사망하기 전 9년 동안 선천(先天) 세계를 끝내고 후천(後天) 세계를 여는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작업을 했다고 알려진다. 본 논문은 증산이 사망한 1909년 이후 증산을 따르는 많은 교단들이 생겨난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증산이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증산 계열 교단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증산 계열 교단들은 교조 사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갈라졌다. 증산 계열 교단들의 역사에 대해 정리한 홍범초의 『범증산교사』에는 크고 작은 교단 29개가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는 월곡의 보천교처럼 증산과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생전 제자들(종도)이 세운 교단이 있고, 증산과 생전에 접촉하지 않았지만 신비체험을 통해 증산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창시된 정산의 무극도 같은 교단이 있다. 고판례 같은 증산의 부인이 직접 교단을 세우기도 했으며, 증산의 딸인 화은당 또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증산법종교라는 교단을 세웠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단들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나 후계자 문제로 다시 교단이 갈라지면서 증산 계열 교단은 많은 수로 늘어났다.

이러한 교단들의 경쟁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앙 대상인 증산과의 관련성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죽은 증산의 유골은 교단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우선 여러 교단의 지도자들은 저마다 증산으로부터의 종통(宗統) 혹은 도통(道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유골이 종통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일한 증거물은 아니더라도, 유골을 빼앗는 교단 간의 다툼이 종통에 대한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또한 20세기 초반 당시 여러 교단들을 중심으로 증산의 출세(出世), 즉 증산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증산의 유골에서 증산이 출세할 것으로 기대하고 유골을 소유하려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렇게 증산의 유골이 증산과 관련은 있되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와 달리, 증산의 유골을 살아 있는 증

산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증산의 유골을 보관하는 것을 '증산을 모시는 것'으로 여기고, 장례를 치르고 증산의 유골이 있는 곳을 '증산이 있는 장소'로 조성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또한 증산의 유골을 수도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여기는 시각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산 유골의 여러 의미와 그 맥락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증산의 유골이 갖는 이러한 의미들은 신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신화는 그것이 사실인 것과 별개로 어떤 공동체가 오랫동안 믿어온 이야기를 가리킨다.[4] 이는 대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글로 쓰인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5]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는 신화가 종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짚기도 한다.[6] 그래서 신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성스러운 것이면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화의 특징들에 따르면, 증산 유골에 관한 이야기 역시 신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증산 유골이 갖는 의미나, 이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초기 증산 계열 교단들의 믿음이 이후 체계적인 교리까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교단들은 증산 유골이 갖는 여러 중요한 의미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7] 따라서 본 논문은 증산 유골이 갖는 의미가 신화적이라고 보고, 유골에 관해 증산 계열 교단들이 믿었던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가 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

4) Wendy Doniger, *The Implied Spider: Politics and Theology in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1998]), ix.

5) Doniger, *The Implied Spider,* 1.

6) Doniger, *The Implied Spider,* 2-3. 도니거는 종교적 질문이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은 있는가'와 같은 질문처럼 경험적인 답을 가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설명한다. 여러 문화들은 각각의 구성원에게 공유되는 경험을 인지하고 공유되는 질문을 묻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적 질문 또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Doniger, *The Implied Spider,* 59.

7) 증산 유골이 단일한 의미를 갖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 또한 신화의 특징과 연결될 수 있다. 도니거는 단일한 신화가 한 문화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여러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공유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Doniger, *The Implied Spider,* 89-90.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신화적 의미가 종교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점으로 짚고자 한다. 먼저 증산 유골의 의미가 증산 유골을 찾아가고, 획득한 뒤 장례를 치르는 특정 교단의 신화적 서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증산 유골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교단의 서사를 다룰 예정인데, 특히 증산법종교의 사례를 통해 증산 유골 찾기 신화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또한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가 장소와 노래 같은 다른 물질로 확장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증산의 유골과 관련해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증산교사』나 『범증산교사』와 같은 일반적인 교단사에서는 증산 유골을 두고 교단 간의 다툼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8] 보천교의 『교조약사』에 대해 다룬 양은용의 연구는 보천교의 자료에 나타난 정산의 유골 발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무극도와의 다툼에 대한 보천교와 무극도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짚고 있다.[9] 박상규는 증산의 유골 발굴 시점, 문공신의 정산 습격 시점 등의 시점에 관해 여러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10] 이처럼 증산 관련 연구에서 증산 유골의 의미 혹은 증산 유골을 둘러싼 다툼의 의미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증산 계열 교단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증산 유골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산 유골이 여러 교단에게 다양한 의미로 활용됐던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짚어 증산 유골이라는 물질적 요소가 증산 관련 연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유골의 의미가 증산법종교의 사례에서 신화적 서사나 다른 물질에

---

8) 이정립은 정산이 1921년 처음 증산의 묘를 발굴한 사건부터 1948년 화은당이 증산 유골을 인도한 사건까지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95-98. 홍범초는 증산 유골을 두고 다투는 여러 주체들의 입장에서 관련된 사건을 서술했다.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271-72(문공신의 입장), 356-58(정산의 입장), 650-656(화은당의 입장), 659-74(강경형의 유골인도소송 사건).

9) 양은용, 「교조약사(敎祖略史)』의 구조와 성격」, 『한국종교』 35 (2012): 16-17.

10) 박상규, 「무극도 관련 문헌 연구: 비교 및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1 (2022): 51-54.

영향을 준다는 것을 논의하면서 증산 유골이 갖는 의미가 고정돼 있지 않은 채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특정 맥락에서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20세기 한국의 증산 계열 교단 사례에서 나타나는 유골 숭배의 다양한 모습과 그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자료는 우선 증산 계열 교단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증산교사』나 『범증산교사』가 있다. 이 자료들은 주로 증산 유골을 둘러싼 다툼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정보를 위해 활용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각 교단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단의 경전이나 간행물을 참고할 것이다. 따라서 보천교에서 발간한 이상호의 『교조약사』, 태극도(무극도의 후신)의 경전 『태극진경』, 대순진리회의 경전 『전경』, 증산법종교의 『화은당실기』 등을 다룰 것이다. 본 논문이 유골의 행방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골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유골에 대한 당시 교단들의 믿음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Ⅱ. 증산 유골 쟁탈 관련 기록: 1909년~1974년의 주요 사건

발생 시기	발생 사건	유골 소재	참고
1909년	증산 사망(화천)	금산 묘지 (전북 금산군 금산면 구릿골 뒷산 장탯날)	
1921년	정산의 발굴 이후 종도 김형렬의 정산 고발	무극도 (전북 정읍군 감곡면 통사동 영모재)	태극진경은 1921년 9월,[11] 증산교사는 1921년 2월로 기록

11) 『태극진경』, 3장 13절.

1922년	문공신의 정산 습격 (이 과정에서 왼쪽 손목뼈 유실) 문공신은 유골을 자택에 보관	문공신	태극진경과 증산교사는 1922년 1월,[12] 전경은 1923년 2월로 기록[13]
1922년	일제의 문공신과 정산 체포 유골은 정읍경찰서로 이송됨	정읍경찰서 (일제)	
1922년	보천교 측으로 유골 이송	보천교	
1927년	정산이 강순임 명의로 보천교 상대로 유골 인도청구소송, 이후 패소	보천교	
1929년	증산의 정씨부인 명의로 보천교 상대로 유골 인도청구소송	보천교	동아일보 1929년 3월 27일 보도
1937년	증산의 유족들이 묘소 이장을 시도했으나 유골이 유실된 것을 확인	보천교	
1948년	화은당 강순임이 보천교 측으로부터 유골을 넘겨받음	증산법종교	
1974년	강경형이 증산법종교 상대로 유골 인도청구소송, 이후 기각	증산법종교	

<증산의 유골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

위의 표는 이정립이 저술한『증산교사』의 15장 '성묘도굴사건'의 내용을[14]

12)『태극진경』, 2장 27절.

13)『전경』, 교운편 2장 24절.

14) 이정립,『증산교사』, 95-98.

중심으로 다른 자료들을 함께 참고해서 증산의 유골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증산은 1909년 8월 9일(음력 6월 24일)에 사망(화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15] 처음 증산의 묘는 그가 활동하던 지역인 전라북도 금산에 위치했다. 이후 증산의 유골을 처음 발굴한 것은 1921년의 정산이었다. 당시 정산 조철제는 무극도라는 교단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는데,[16] 증산의 유골을 당시 자신의 본거지였던 통사동 영모재(정읍시 감곡면)로 가져온다. 이 사건은 다른 교단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증산의 종도였던 김형렬은 정산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종도였던 문공신은 유골을 빼앗아 올 것을 계획하고, 1922년 1월 정산 측을 습격했다. 문공신은 증산의 유골을 가져오는 데 성공해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특히 증산의 유골 중 왼쪽 손목뼈가 유실됐다. 이정립은 정산이 다른 사람을 통해 왼쪽 손목뼈를 갖고 도망치게 했으며 이후 순창 회문산에 매장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증산의 왼쪽 손목뼈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문공신의 습격 사건으로 문공신과 정산은 모두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문공신은 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산은 곧바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증산의 유골은 정읍경찰서로 이송됐지만 보천교의 요청으로 월곡 측에게 인도된다.

이후에 보천교가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두 차례 상대했다는 기록이 있다. 먼저 1927년 정산은 증산의 딸 화은당 강순임의 명의로 보천교 측에 유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증산교사』 외에 『교조약사』와 『화은당실기』에서도 확인된다.[17] 보천교의 교주 월곡 차경석은 정산에게 소송을 당하자 대

15) 『증산천사공사기』, 145.

16) 정산은 전라북도 구태인 정읍군 도창현(현재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에 무극도의 도장을 세우고 교단을 이끌었다. 1936년 이후 일제에 의해 교단이 강제 해산됐지만 1948년 교단의 이름을 태극도로 바꾸고 부산으로 이동해 교단 활동을 이어갔다. 1921년 증산의 유골을 발굴할 당시는 아직 도창현의 도장을 세우기 전이었다.

홍리 뒷산 중턱에 유골을 암장하고 기존 묘에는 다른 사람의 유골을 묻어둔 것으로 이정립은 기록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보천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8] 두 번째 소송은 증산의 배우자이자 화은당의 모친인 정씨부인의 명의로 1929년에 이뤄졌다.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는『증산교사』를 비롯해 앞서 다룬 자료에 언급된 바 없지만,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져 있다.[19]

1948년에 화은당이 증산의 유골을 보천교 측으로부터 가져오기 전까지 유골의 행방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산교사』에 따르면, 1937년 증산의 친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찰을 대동해 보천교 측을 찾았으나 유골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1948년에 화은당이 다시 보천교를 찾았을 때는 월곡의 동생 차윤경의 도움을 받아 유골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화은당은 증산의 유골을 증산법종교 도장이 위치한 금산 오리알터(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로 옮겨 장례를 치른 뒤 안장했다.

하지만 증산의 유골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증산과 친척 관계에 있던 강경형(강석환)이라는 사람이 1973년에 법적으로 증산의 양자로 호적에 오른 뒤 자신의 양부인 증산의 유골을 이장하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20] 이후 강경형이 1974년에 유골인도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측은 증산법종교의 유골 소유권을 인정해 패소했다.『범증산교사』에 소개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 종교 단체의 창시자의 묘를 그 종교 단체와 신자들이 오랫동안 관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유골을 매장한 묘에 관한 권리가 종교단체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50년 넘도록 쟁탈의 대상이었던 증산의 유골이 증산법종교의 소

---

17)『교조약사(敎祖略史)』의 23-24번째 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양은용,「『교조약사(敎祖略史)』의 구조와 성격」, 251;『화은당실기』, 1장 10절. 화은당은 젊은 시절 자신이 정산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18) 증산 계열 종단 중 하나인 증산도의 경전『도전』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정산이 보천교 측의 유골을 발굴하려고 한 번 더 시도했다고 서술하고 있다.『도전』, 10편 142장. 또한 1923년 강순임 명의의 소송을 하기 전에도 정산 측이 보천교의 유골을 도굴했다가 보천교에서 되찾았다는 내용도 있다.『도전』, 10편 141장.

19)「普天敎主걸어 遺骨 請求訴, 소송만 느는 최근「대시국」姜甑山의 妻가 原告」,『동아일보』1929.03.27. 5면 1단. 기사에 따르면, 보천교에 적대적인 세력이 정씨부인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 홍범초,『범증산교사』, 669-74.

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증산의 유골은 증산법종교의 오리알터 도장에 현재까지 안치돼 있다.

Ⅲ. 증산 유골의 다양한 의미: 왜 증산의 유골을 소유하려 했는가?

앞서 수십 년간 쟁탈의 대상이 됐던 증산의 유골과 관련된 사건들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는 도굴이나 폭력 등 범법의 여지가 있는 수단이 동원되기도 했고, 법적인 분쟁 또한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증산 계열 교단들 사이에서 증산의 유골이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증산 계열 교단들이 왜 증산의 유골을 소유하려 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유골에 대한 숭배는 인류의 역사 속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불교와 가톨릭의 많은 신자들은 유골이 힘, 은혜, 자비, 생명 등을 갖고 있다고 믿어왔다. 유골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 힘, 은혜, 자비, 생명이 옮겨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21]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골이 특정한 힘을 갖는다고 여기고,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사리탑을 조성하고 기념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증산 계열 교단들에게도 증산의 유골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증산의 유골은 무엇보다도 증산이 죽고 난 뒤 증산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활용됐다. 증산 사후 여러 교단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각 교단들은 증산과의 관련성을 입증해 정통성을 인정 받고 다른 교단과 차별화해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증산의 유골을 차지하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의 유골은 증산의 후계자로서 종통을 잇는다는 증거물로 기능하기도 하고, 증산이 부활하는 원천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리고 증산의 유골을 다른 의미가 아닌 살아있는 증산과 같이 여기며 유골을 통해 증산의 현존을 경험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증산의 유골을 몸에 지니면 도를 닦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성물로 믿는

21) Gregory Schopen, “Relic,” in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ed. Mark C. Tayl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262.

경우도 기록돼 있다.

1. 종통을 잇는 증거물

먼저 무극도의 사례를 통해 증산의 유골이 종통을 잇는 증거물로 기능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극도의 정산은 증산의 유골을 발굴하는 이유로 자신이 증산의 "도통(道統)"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2] 자신이 증산의 후계자인데 증산 생전에 그를 모시지 못했으니 뒤늦게라도 모시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정산은 증산과 물리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증산으로부터의 종통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태극도의 자료에 따르면, 1921년 정산이 증산의 유골을 발굴하기 5개월 전에 처음으로 자신이 증산의 "도통 계승자"라고 선언했다.[23] 따라서 정산이 증산의 유골을 차지하려고 한 것은 자신의 종통을 증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보천교의 시각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보천교의 자료인 『교조약사』를 보면, 1921년 정산이 증산의 유골을 발굴한 것이 "교통(敎統)을 계승"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24]

무극도와 마찬가지로 보천교 또한 종통을 증명하기 위해 유골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시각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7년 무극도와 보천교 사이에 증산 유골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증산법종교의 자료에서 이러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 조철제와 차경석 사이에 소송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성부의 체

---

22) 『태극진경』, 3장 14절. "내가 상제님의 도통을 계립(繼立)한 진주이나 재세시에 옥체를 직접 봉성(奉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이와 같이 모심으로써 천의(天意)를 받드느니라."

23) 『태극진경』, 3장 8-9절.

24) 『교조약사』의 19-20번째 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양은용, 「『교조약사(敎祖略史)』의 구조와 성격」, 250. "교조의 묘를 굴(掘)하여 유골을 반이(搬移)하여 자기의 가(家)에 두고 교조의 친매(親妹)와 연락하여 교조의 의자(義子)로 유명(遺命)을 득(得)하여 교통(敎統)을 계승하였다 칭하고"

> 백을 모시는 자가 장차 재림시에 법통을 이을 수 있다는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주들 가운데에는 체백을 서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25]

여기서 '성부의 체백'은 증산의 유골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모시는 자'가 곧 '법통'을 잇는다는 시각이 당시 쟁탈에 나선 교단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증산법종교의 창시자이자 증산의 딸인 화은당에게도 증산의 유골은 종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증산법종교는 화은당이 증산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점과 증산의 유골을 찾아나선 화은당의 효심을 강조한다. 증산의 딸로서 부친의 유골을 거두는 화은당의 '효심'이 종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증산 출세의 원천

증산 사후 초기에 증산의 출세(出世), 즉 증산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증산 계열 교단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박인규는 월곡을 비롯한 보천교의 핵심 간부들이 증산 출세설을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산이 출세하면 월곡이 증산의 수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보천교의 '차천자 등극설'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26] 증산이 출세한다는 믿음은 증산의 언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언술에서 증산은 자신이 출세할 때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신자들은 도를 제대로 닦은 사람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 가라사대 내가 출세할 때에는 천지가 진동하고 뇌성벽력(雷聲霹靂)이 대작(大作)하리니 잘못 닥근 사람은 죽지는 아니하나 안질 자리가 없서서 참석하지 못할 것이오. 갈 때에는 따라오지 못하고 업드러지리라.[27]

---

25) 『화은당실기』, 1장 10절.

26) 박인규, 「1920년대 차천자 등극설 연구」, 『종교와문화』 41 (2021): 45-57. 박인규는 증산 출세설이 보천교가 발전한 주된 동인으로, 월곡이 증산의 출세 시기를 특정하는 시한부론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종단을 키웠다고 설명한다. 한편 본론에서 다루는 무극도보다 증산출세설을 더 중요하게 다뤘던 보천교 또한 증산 유골을 증산 출세의 원천으로 어느 정도 봤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하로는 모든 종도(從徒)다려 일너 가라사대 나의 얼골을 잘 익혀두라. 후일에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28]

증산이 출세한다는 믿음이 유골과 관련된다는 점은 앞서 인용했던 증산법종교의 『화은당실기』에서도 나타난다. 증산의 유골은 갖고 있으면 "재림시에 법통을 이을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29] 증산 계열 종단 중 하나인 증산도의 경전 『도전』에는 정산이 증산 출세의 원천으로 유골을 이용했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이어 성골을 도굴하여 통사동 영모재 골방에 감춰 두고 '모월 모일에 상제님의 뼈에 살이 붙어 나와 상제님이 다시 출세하신다.'고 하며 신도들의 금전을 갈취하니라.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상제님께서 오시지 않으매 다시 상제님 성탄절인 9월 19일로 연기하였으나 역시 허사가 되니라.[30]

정산의 교단이 증산의 유골을 출세의 원천으로 여겼다는 시각은 당시 무극도에서 활동했던 내부자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다음의 글은 「원불교신문」에 실린 원불교의 성산 성정철 종사의 증언으로, 성산 종사는 정산 조철제와 사돈 관계였으며 원불교에 귀의하기 전 무극도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간부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 증산의 묘를 파 유골을 비단보에 곱게 싸서 모셔 놓고, 소와 돼지 등을 잡아 날마다 치성을 올리면서 이듬해인 1924년 갑자년 정월 초하룻날에 증산이 다

---

27) 『대순전경』, 109-10.

28) 『대순전경』, 241.

29) 『화은당실기』, 1장 10절.

30) 『도전』, 10편 139장 4-5절. 증산도는 정산의 유골 발굴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증산의 유골이 악용됐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31) 「구도역정기<2>」, 『원불교신문』 1981.10.06. 구도역정기는 박혜명 교무가 원불교의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 원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글이다. 박혜명 교무가 성산 성정철 종사의 구술을 정리했다.

> 시 오시어 도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계해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돌아다니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었다. 종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중들은 막연한 이들의 포교 술에 녹아 있는대로를 다 바쳤고, 갑자년 1월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이 때 거둬들인 돈과 물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여자들의 은가락지만도 서 말이 넘었다. 이렇게 하여 증산의 환생과 동시에 도통을 바라던 갑자년 1월이 다가왔다. 그러나 아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때 조철제씨는 대중들에게 3월이라고 연기함으로써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기다리게 했으나 역시 3월이 다 가도 아무런 변화는 없었다.[32]

『도전』과 마찬가지로, 성산 종사의 증언은 무극도가 증산의 유골을 증산 출세설과 관련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극도 측에서 신자들에게 돈을 거뒀지만 증산의 출세는 없었고, 출세 시기를 늦춰서 예고했다는 내용도 『도전』과 유사하다.[33] 따라서 정산의 무극도가 증산의 유골을 증산이 출세하는 원천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적어도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산 종사의 증언에는 1922년 있었던 문공신 무리의 무극도 습격이 증산의 출세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실망한 이들이 벌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담겨 있다.

> 많은 사람들은 속은 줄을 깨닫게 되었고, 드디어 그 허망함에 분노의 함성을 터트렸던 것이다. 이들은 눈만 나오는 가면 모자를 둘러쓰고 손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어느 날 밤을 기해 본부를 향해 쳐들어갔던 것이다. (중략) 조철제씨를 잡지 못한 그들은 대신 증산의 유골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34]

이러한 시각은 문공신의 습격을 서술하는 『증산교사』와 여러 교단의 자료

---

32) 「구도역정기<3>」, 『원불교신문』 1981.10.16.

33) 태극도는 당시 무극도가 증산의 유골을 안치할 첫 도장을 건립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극진경』, 3장 16-17절.

34) 「구도역정기<3>」, 『원불교신문』 1981.10.16.

들의 시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공신의 습격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산 종사의 증언이 증산의 유골을 증산의 출세와 관련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증산의 대체물

증산의 유골은 증산이 죽고 난 뒤 살아 있는 증산을 대체하는 물질이었으며 때로는 증산 자체를 의미하는 물질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증산의 유골을 인도받아 특정 장소에 안치할 때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무극도 정산이 1921년 증산의 유골을 발굴할 당시의 기록을 다시 한 번 참고한다.

> 증산상제님의 초빈(草殯)에 고천의례(告天儀禮)를 올리신 다음, 일행으로 하여금 초빈을 헐게 하시니라. 친히 상제님의 성골(聖骨)을 관에서 정성들여 수렴(收殮)하셔서 칠성판(七星板) 위에 순차로 정제(整齊)하신 후에 통사동 공부처로 모셔 오시니라. 상제님께서 성골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 백지로 감으시고 비단으로 봉렴(奉殮)하셔서 공부실 상좌에 봉안하신 다음, 대치성을 올리시니라. 이로부터 매일 목욕재계하시며 선덕부인을 위시한 유가족과 임원들을 대동하시고 조석상식과 삭망절사(朔望節祀)를 상례절차(喪禮節次)에 준하여 봉행하시며[35]

묘를 발굴하기 전, 정산은 증산의 묘 앞에서 일종의 예식 행위를 한다. 또한 격식을 갖춰 증산의 유골을 가져온 뒤 장례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정산의 행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증산을 모시는 일'을 그가 살아있을 때 못했기 때문에 유골을 대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산의 유골을 살아 있는 증산처럼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증산의 유골을 가져오고 난 후 정산은 곧바로 '증산이 있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단 활동의 중심지인 도장 건립을 추진했다.[36]

---

35) 『태극진경』, 3장 13-14절.

증산법종교의 기록에서도 증산의 유골을 곧 살아 있는 증산처럼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증산법종교의 창시자이자 증산의 딸인 화은당 강순임은 부친인 증산과 모친인 정씨부인으로부터 음성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진다. 증산은 이미 사망했지만 화은당은 음성 계시를 통해 증산과 같은 시간대에서 소통한다.

> 성모께옵서 하명하시되 "너의 아버지 묘각이 그래 가지고는 장구하게 계실 수 없으니 오리알터에 영영 안장할 수 있도록 하라"[37]

> 성부께서 하명하여 말씀하시되 "오는 삼월 십오일에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지니라.[38]

위의 기록은 화은당이 증산의 유골을 넘겨받은 직후 정씨부인과 증산으로부터 음성 계시를 받는 상황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을 보면, 증산의 유골은 증산과 동일시되며 오리알터에 유골이 안장되는 것은 '증산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유골이 있으면 곧 그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시각은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발견된다.[39]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에는 "유골이 있는 곳에 붓다가 있다"고 이야기 될 수 있다. 이렇게 증산의 유골을 증산처럼 여기는 것은 로버트 올시(Robert Orsi)가 이야기한 '현존(real presence)' 개념으로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올시에 따르면, 근대 서구 사회에서 신이 현존한다는 표현은 야만적이거나 원시적으로 여겨졌다.[40] 올시는 근대 서구의 종교 연구가 신의 현존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상징, 은유 같은 것으로만 다룬 것을 비판하

---

36) 『태극진경』, 3장 16절. "이제부터는 도의 근본이 되시는 구천상제님의 성령봉안처(聖靈奉安處)로서 도장(道場)이 긴요(緊要)하니 그대들은 이의 영건(營建)을 위한 방책을 세우도록 하라." 여기서 '구천상제'는 무극도(태극도)에서 증산을 일컫는 말이다.

37) 『화은당실기』, 6장 3절.

38) 『화은당실기』, 6장 5절.

39) Schopen, "Relic," 261-62.

40) Robert Orsi, *History and Pres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3-4.

고,[41] 종교 연구가 신의 현존과 관련해 인간이 무엇을 하는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시는 인간이 경험하는 신의 현존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42] 마찬가지로 증산의 유골은 증산과 관련은 있되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증산 자체와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신자들은 증산의 유골을 통해 증산의 '현존'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수도(修道)에 도움이 되는 성물

증산의 유골이 도를 닦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성물(聖物)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정립은 정산이 "성골(聖骨)을 몸에 지니고 수련하면 쉽게 도통(道通)된다는 말을 유포"했다고 기록했다.[43] 증산도의 『도전』에서는 정산이 증산의 유골을 처음 발굴한 이유가 "'상제님의 성골을 모시고 수도하면 큰 기운이 붙어 도통하고 교단이 크게 번창한다'는 소문에 현혹"됐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44]

이러한 기록들은 구체적인 서사와 관련 없이 증산 유골을 소유하는 자에게 전반적인 이득이 생긴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유골의 의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산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례로 보인다. 달리 표현한다면, 증산과 관련된 서사보다도 유골 자체가 지닌 물질적 성격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신자들이 유골과 관련된 신화적 요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유골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41) 여기서 올시는 상징과 현존을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요한은 제주도의 멩두 사례를 통해 상징이면서 동시에 성스러움의 현존일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유요한, 「제주 전통 종교 신화와 의례의 학술적 가치」, 『종교학연구』 39 (2021): 12, 26번 각주. 멩두와 관련된 유요한의 구체적인 논의는 출판될 예정인 S. Brent Rodriguez Plate, Birgit Meyer, and Pooyan Tamimi Arab (eds.), *Routledge Handbook of Material Religion* (London: Routledge)의 "Material God Mengdu: A Symbol and Real Presence" 챕터에서 다뤄졌다.

42) Orsi, *History and Presence,* 69.

43) 이정립, 『증산교사』, 96.

44) 『도전』, 10편 138장.

Ⅳ. 증산 유골의 의미 확장: 유골이 다른 요소에 미치는 영향

증산의 유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골 그 자체가 무엇인지 살피는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증산의 유골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45] 이러한 작업은 유골의 신화적 의미가 다른 요소로 확장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3장에서 초기 증산 계열 교단들이 증산의 유골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는지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당시 교단들이 증산 유골을 두고 다툰 과정을 각기 다른 서사로 만든 것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정산은 증산의 유골을 발굴한 일을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면,[46] 문영상은 무극도를 습격해 증산 유골을 빼앗았던 일이 증산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47] 이처럼 각 교단들은 자신의 맥락에서 증산 유골과 관련된 경험을 자신들의 의미 있는 서사로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증산 유골이 갖고 있는 의미는 특정 교단의 서사 혹은 물질과 같은 대상으로 확장되고, 증산의 유골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기도 한다. 당시 교단이 증산 유골과 관련된 서사를 만드는 모습은 증산법종교의 화은당이 증산 유골을 찾는 이야기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증산 유골의 의미가 증산법종교의 신화적 서사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증산법종교의 사례에서 또한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가 장소나 노래와 같은 다른 물질로 확장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증산 유골이 갖는 의미가 고정돼 있지 않고 다른

---

45) Schopen, "Relic," 260. 쇼펜은 유골이 물리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규정되는 동시에 유골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사람들이 유골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규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6) 『태극진경』, 3장 14절. 한편 대순진리회 내에도 정산의 증산 유골 발굴 사건을 의미 있는 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래 증산의 묘를 접촉하려고 하면 천둥 번개가 쳐서 접근할 수 없었는데 정산은 증산의 유골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정산이 돌아간 후에야 번개가 쳤다고 『전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정산의 유골 발굴이 증산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신상미, 「상제님의 성골」, 『대순회보』 139 (2012).

47) 『범증산교사』에 따르면, 증산이 생전에 문영상에게 "내 뼈가 조선을 떠나면 안 되리라"고 말했는데, 정산이 증산의 유골을 만주로 옮기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문영상은 습격을 계획했다. 홍범초, 『태극진경』, 271-72.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증산 유골이 수동적인 객체로만 머무는 물질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보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증산 유골 찾기 신화의 구조: 증산법종교의 '육기초공사' 서사

'육기초공사(六基礎公事)'는 증산법종교가 핵심적으로 기념하는 사건이자 화은당 강순임이 증산의 딸로서 증산으로부터 부여받아 행한 임무이다. 동시에 이는 증산법종교라는 교단이 창시되기까지 화은당이라는 창시자가 겪은 교단의 창립 서사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화은당의 육기초공사 서사를 유골 찾기 신화로 재구성하고, 증산의 유골이 만들어내는 신화적 서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육기초공사는 증산의 음성 계시를 따라 여섯 장소에서 증산의 명령에 따라 건축을 하고 증산을 대상으로 치성을 했던 일을 가리킨다.[48] 화은당과 구암 김병철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증산의 명령을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그곳을 개척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육기초공사의 서사가 증산의 유골을 찾는 과정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증산의 유골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화은당의 육기초공사 서사는 '유골 찾기'부터 '장례'까지의 여정을 포함하는 신화로 재구성될 수 있다. 특히 화은당의 서사는 '분리 및 출발', '입문(시련과 승리)', '회귀(재통합)'과 같은 영웅 신화의 구조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49]

『화은당실기』의 내용을 증산 유골에 관한 신화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젊은 시절 화은당은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아가며 죽음을 결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친인 증산의 음성 계시를 듣기 시작하면서 육기초공사를 위한 여정을

48) 화은당의 일생을 다루는『화은당실기』내용의 대부분이 육기초공사라고 볼 수 있다. 홍범초,『범증산교사』, 632-56은 이를 요약하고 있다.

49) 여기서 언급한 '분리 및 출발', '입문(시련과 승리)', '회귀(재통합)'은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이 제시한 영웅 신화의 단계다.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1949]), 28-35.

시작했다. 화은당은 처음부터 증산의 유골을 찾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한다.[50] 특히 증산이 자신의 유골을 찾으라고 처음 명령했을 때, 유골을 찾는 일이 "평생 소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51] 하지만 증산의 유골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고,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며 시련을 겪는다.[52] 그렇지만 화은당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증산의 유골을 찾아나선다.[53] 결국 화은당은 1948년 보천교 측 차윤경의 도움을 받아 유골을 인도받는 데에 성공한다.[54] 그리고 증산의 음성 계시를 따라 육기초공사의 마지막 장소인 오리알터(전북 김제시 금산면)에서 증산의 유골을 안장하고 장례를 지내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유골 찾기 신화로 재구성된 화은당의 육기초공사 서사는 증산의 유골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 장례로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증산 유골의 의미가 화은당의 경험과 함께 맞물려 신화적인 서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골의 의미가 구체적인 맥락과 결합하면서 확장되고 새로워질

---

50) 『화은당실기』, 2장 3절. "부친의 체백은 신앙자로 하여금 이리저리 분산적란을 당하였으니 뼈골이나 찾아 안장해야 되겠으며"

51) 『화은당실기』, 3장 15절. "'너희들이 다시 할 일이 있으니 시키는대로 하라. 이제는 나의 체골을 찾아 와야 할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성부님의 체백을 모시고자 함은 우리의 평생 소원으로써 이제 와서 비로소 이와 같은 명령이 내리시니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명령대로 봉행하여 이루지 못한 일이 없음을 생각할 때, 이제는 평생 소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어 오나보다고"

52) 『화은당실기』, 3장 15절. "집에서는 틀림없이 체백을 모시고 오리라는 생각으로 의관문물이며 신발 재터리 세수대야등 일체를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허행하고 되돌아오니 모두 정신이 암암하고 맥이 빠져 넋을 잃은 체 중궁에 들어가 엎드리니"; 『화은당실기』, 6장 4절. "두루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은즉 아무래도 그들이 평장한 채 돌보지 않은 동안에 산사태가 나서 흩어져버린 모양 같으니 단념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하기에 여관으로 돌아와서 막막히 앉았자니"

53) 다음은 화은당과 구암의 기도 내용이다. 『화은당실기』, 6장 4절. "핏줄을 받은 몸으로써 아직도 성부님의 옥체를 찾아모시지 못한 채 어디엔지 알 길도 없는 풀 덤불속에 버려둔 체로 있아오니 어찌 차마 하루 밤인들 발을 뻗고 잠들 수 있아오리까 언제나 옥체를 찾아 모시어 명산대천에 터를 잡아 안장하여 일편단심 사무쳐 지새운 그동안의 사적을 성부님의 홍대무량하신 성업을 기념하기 위해 세울 삼청루각 한곳에 기록하고 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아온 즉 성부님께옵서 명백히 계시하시와 저희의 원을 풀게 하시옵고"

54) 『화은당실기』, 6장 5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골 찾기 신화가 유골이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은당의 서사는 장례로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유골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례가 유골의 종착지이자 유골 관련 서사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른 물질로의 신화적 의미의 확장: 증산법종교의 장소와 노래

증산법종교의 사례를 통해 이번에는 증산의 유골이 갖는 신화적 의미가 다른 물질로 확장되는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증산의 유골이 있는 '장소'에 대해 다룰 것이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1948년 이후 증산의 유골은 증산법종교의 오리알터 도장에 안치돼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오리알터 도장이 증산의 유골이 있다는 점에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는 3장에서 다루었듯이 오리알터 도장은 증산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55] 유골로 인해 중심적인 장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유골로 인해 그 장소가 성스러운 사람이 있거나 포함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5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가 오리알터 도장이라는 장소로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도수가(道數歌)라는 노래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증산법종교의 육기초공사 서사 중에는 '도수가'라는 노래를 짓고 단체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증산의 음성 계시 때문이었다.

---

55)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까지도 오리알터 도장이 증산법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증산 계열 교단에서 순례의 장소로 고려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대순회보』 83 (2008). 이 글은 증산이 활동했던 곳이더라도 성지로서의 생명력이 다한 장소들은 성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산의 유골이 있는 오리알터는 성지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56) Shopen, "Relic," 266.

"너희들은 이제부터 치성을 올릴 때에 잔만 올리고 가사를 지어 그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된다"고 하시니, 가족 전원이 모여 수일동안 치성을 올리고 춤을 추니라. 우리는 가사를 지어 앞소리를 메기고 뒷소리를 받으면서 춤을 추는데 성부님께옵서 명령하사되 "기운이 적다 힘차게 노래하고 힘차게 춤을 추라"고 하시어 번을 짜서 교대하면서 노래와 춤추기를 쉬지 않았으니 이러기를 한달에도 몇 번씩이나 하였다.[57]

이번에는 너희들이 서로 만난 뒤로부터의 자초지정을 작사하여 노래 부르며 그 가락에 맞추어 더욱 흥겹게 춤을 추도록 하라[58]

증산의 음성 계시는 화은당과 그 무리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시대를 반영해서 가사를 짓도록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결과 8개의 도수가가 『화은당실기』에 수록돼 있다. 도수가를 부르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의례로 온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증산법종교는 오랫동안 도수가를 불러왔으며, 현재까지 도수가를 전해오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도수가의 가사에 증산의 유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도수가'와 '도수가 삼(3)'의 가사 중 증산의 유골과 관련된 가사를 발췌한 것이다.

성부체백 분산된채 도난마저 당했으니
이일저일 생각하면 전무후무 일났도나
재하책임 도리로서 옥체찾지 못한불효
성부옥체 찾았어야 천지도수 순조로다
옥체찾아 다니다가 허행함이 수차례라[59]

명찰하신 대성부녀 자비하신 대성모녀
우매도생 열성없어 성부옥체 찾지못해

57) 『화은당실기』, 3장 17절.
58) 『화은당실기』, 4장 6절.
59) 『화은당실기』, 4장 6절. '도수가' 중 일부.

원통하고 애닯으다 황송무지 망극일세[60]

두 노래는 모두 화은당이 증산의 유골을 찾기 전에 지어진 노래로, 당시의 상황과 증산법종교 사람들이 증산의 유골에 대해 느낀 감정이 담겨 있다. 위 가사에는 증산의 유골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증산의 유골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돼 있다. 증산법종교에 이 노래가 전해질 때에는 증산의 유골을 찾는 상황과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함께 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증산법종교의 신자들은 노래의 특성에 맞게 증산 유골에 관한 교단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증산 유골과 관련된 가사의 도수가(道數歌)가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가 확장되어 노래라는 형태로 표현된 사례라는 것을 보여준다.

V. 나가며: 유골 쟁탈사와 상호작용하는 유골의 의미

증산 유골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 초기 증산 계열 교단이 증산 유골에 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봤다. 증산의 유골은 각 교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졌다. 이는 증산 유골의 의미가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유동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골의 의미는 확장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산 유골은 단순히 수동적인 객체로만 머무르지 않고 신화적 서사나 장소, 노래 같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증산 유골의 특징은 신유물론(new materialism)으로 불리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효과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신유물론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용어로, 인문학에 만연했던 인간/비인간, 정신/물질, 문화/자연과 같은 이원론에서 벗어나고자 그동안 간과됐던 물질에 집중하며 일원론적인 시각을 취하는 학문적 흐름이다.[61] 신유물론은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지각과 지식 범위를 넘

60) 『화은당실기』, 4장 8절. '도수가 삼(3)' 중 일부.

어서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며 물질성 자체를 주의 깊게 고려한다는 특징을 갖는다.[62] 다시 말해, 물질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을 유발하는 행위자성(agency)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63]

신유물론의 시각에 따르면, 증산의 유골은 초기 증산 계열 교단사 속 특정 맥락에서 행위자성을 가진 주체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가 교단들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증산 유골의 쟁탈사가 증산 유골의 신화적 의미와 상호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교단이 경쟁하며 증산 유골을 빼앗고 활용한 맥락이 증산 유골이 의미하는 바에 영향을 미쳤고, 한편으로는 증산 유골의 의미가 신화적 서사, 장소, 음악 등 다른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증산 유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유골을 둘러싼 쟁탈사를 다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증산 계열 종교 연구에서 물질적인 측면이 중요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상적인 측면에 집중했지만, 유골뿐만 아니라 증산의 둔궤나 현무경 등의 사례를 보면 증산 계열 교단사에서 물질적인 측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에 조명되지 않았던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점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증산, 유골, 유골 숭배, 증산법종교, 무극도, 보천교

---

61) Rick Dolphijn and Iris van der Tuin,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Ann Arbor: Open Humanities Press, 2012), 86, 93. 이 책 외에도 신유물론이라는 흐름을 소개하는 책은 다음과 같다. Diana Coole and Samantha Frost (eds.),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62) Sonia Hazard, “The Material Turn in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and Society* 4 (2013): 64-67.

63) Hazard, “The Material Turn in the Study of Religion,” 65-66. 물질을 행위자(agent)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프레드 겔(Alfred Gell)이 앞서 논의한 바 있다. Alfred Gell, *Art and Agency: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7-23. 겔은 의도를 가진 인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맥락에 따라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 고 일: 2022. 11. 08.
심사종료일: 2022. 11. 25.
게재확정일: 2022. 11. 29.

참고문헌

김병철. 『화은당실기』. 김제: 증산법종교, 1989[196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경성: 동화교회도장, 1929.

_____. 『증산천사공사기』. 경성: 상생사, 1926.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서울: 대원출판사, 2003.

태극도편찬위원회. 『진경』. 서울: 태극도출판부, 1989.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대순회보』 83 (2008).

문일석. 『증산 왼팔 유골 어디로 갔나』. 서울: 제일미디어, 1993.

박상규. 「무극도 관련 문헌 연구: 비교 및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1(2022): 27-61.

박인규. 「1920년대 차천자 등극설 연구」. 『종교와문화』 41 (2021): 35-69.

신상미. 「상제님의 성골」. 『대순회보』 139 (2012).

유요한. 「제주 전통 종교 신화와 의례의 학술적 가치」. 『종교학연구』 39 (2021): 1-23.

양은용. 「『교조약사(敎祖略史)』의 구조와 성격」. 『한국종교』 35 (2012): 223-51.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Campbell, Joseph.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1949].

Dolphijn, Rick. and Iris van der Tuin.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Ann Arbor, MI: Open Humanities Press, 2012.

Doniger, Wendy. *The Implied Spider: Politics and Theology in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1998].

Gell, Alfred. *Art and Agency: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Hazard, Sonia. “The Material Turn in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and Society* 4 (2013): 58-78.

Orsi, Robert. *History and Pres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Schopen, Gregory. “Relic.” In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edited by Mark C. Taylor, 256-6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구도역정기<2>」, 『원불교신문』 1981.10.06.

「구도역정기<3>」, 『원불교신문』 1981.10.16.

「普天敎主걸어 遺骨 請求訴, 소송만 느는 최근「대시국」姜甑山의 妻가 原告」, 『동아일보』 1929.03.27.

Abstract

The Mythical Meaning of Jeungsan's Relics:

A Study of the Scramble for Jeungsan's Relics among Early Jeungsan Groups

Choi, Myung Hoon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rious meanings of Jeungsan's relics and the expansion of the mythical meaning of Jeungsan's relics to mythical narratives and other material things such as song and place. After the death of Gang Ilsun (1871-1909), better known under his sobriquet Jeungsan, who was the leader of a new religious movement in Korea, many groups following him scrambled for Jeungsan's relics. They resorted either to grave robbery, violence, or lawsuits because they believed that Jeungsan's relics could confirm the legitimacy of his successor or that Jeungsan would resurrect from the relics. Some people regarded the relics as Jeungsan's real presence and others thought the relics were helpful for self-discipli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faced by each Jeungsan group, Jeungsan's relics had different meanings. Thus the meaning of the remains was fluid and dependent on relationships with other subjects.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relics was expanded. They did not just remain as passive objects, but also influenced mythical narratives and other material things. Through the case of a Jeungsan group called *Jeungsan beopjonggyo* (甑山法宗教), I argue that the narrative of Hwa-eun-dang, the only daughter of Jeungsan, searching for his relic can be reconstructed into a myth of finding relics. Also, I explain that the mythical meaning of Jeungsan's relics was expanded in the songs which contain lyrics about the relics and the place where the relics are located. In conclusion, I argue that events related to Jeungsan's relics and the meaning of the remains interact with each other.

Keywords: Jeungsan, relics, relic cult, *Jeungsan beopjonggyo* (甑山法宗教), *Mugeukdo* (无極道), *Bocheongyo* (普天教)